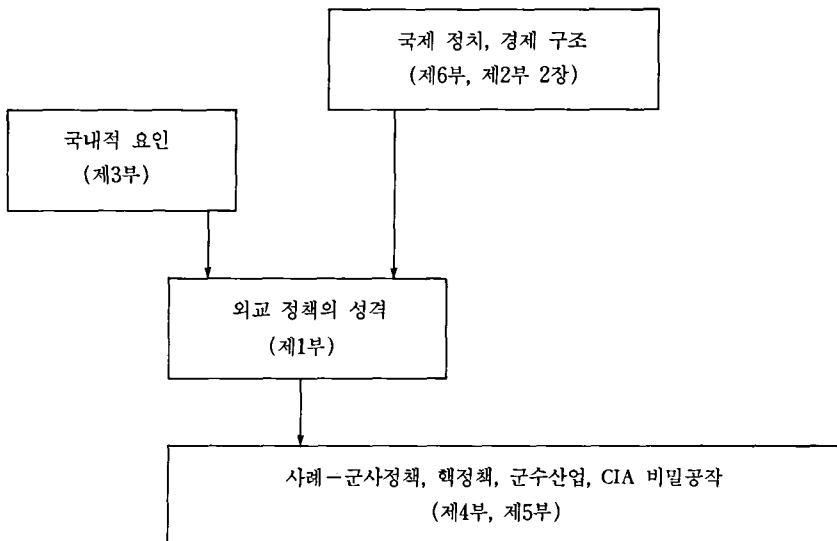


## 서 평

이삼성 저,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 한길사, 1993, 681 p.

### 백 창 재

이삼성 교수의 『현대미국외교와 국제정치』는 이 분야의 선구적 업적일 뿐 아니라 그 포괄성과 논의의 치밀함이 이미 널리 인정된 바 있다. 평자는 다만 이 기회를 빌어 나름대로 아쉬운 점 몇가지만을 지적하려 한다. 이 책은 저자가 미국의 외교정책과 국제정치에 관해 다년간 발표해 온 글들을 묶어 펴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글이 책의 구상에 들어맞는다. 즉, 저자는 미국의 외교정책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구조적 및 행태적, 그리고 안과 밖의 요인을 포괄하는 틀을 의도하고 있는데, 700 페이지, 23개 장에 달하는 방대한 책에 묶여진 글이 대체로 이 틀에 깔끔하게 들어맞고 있다. 다만 저자는 이 틀안에서의 각 변수군에 대해 명확한 관계설정을 하지 않고 있다. 저자의 말을 빌리자면, “여기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수는 없다”(p. 102). 따라서 저자는 미국외교정책의 성격을 규정하는 국제구조와 국내적 요인의 두 차원에 대한 분석틀보다는 두 차원에서의 기존 논의에 대한 포괄적 소개를 의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틀에 따라 책의 내용을 재구성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제구조적 요인을 다루고 있는 부분에 관해 살펴보자. 저자는 이 부분에서 권력균형론과 헤게모니론 등을 비판하고 현실주의와 자유주의의 대안적 시각으로서 맑스주의 국제정치 이론을 소개하고 있다. 국제구조에 대한 제 이론의 소개라는 측면에서 평가할 때 제6부는 대단히 철저하고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다음의 몇가지 아쉬운 점도 남긴다. 우선 다른 부분과 비교해 볼 때, 제 이론의 소개와 이론에 대한 비판의 소개에 치중한 나머지 저자 자신의 시각이 극히 암시적으로만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이 책이 입문서로서 의도되었다는 점을 감안해도 이 부분이 너무 이론의 '소개'에 치중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결과적으로 미국외교의 국제구조적 결정요인들에 대한 검토는 제 이론들에 의해 여과된 형태로 제시된다. 더우기 탈냉전 이래의 미 외교정책을 재수정할 요인으로 평가받는 구조적 요인들 즉, 정치, 군사적 단극화와 경제적 다극화 등은 거의 언급되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국내적 요인을 다루고 있는 제3부를 살펴보자. 한 국가의 외교정책은 단순히 국제환경에 의해서만 결정되지 않는다. 환경의 변화에 대한 특정한 반응이 국내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외적으로는 강하고 내적으로는 약한' 국가로 평가되는 미국의 경우에는 국가기구가 사회세력의 영향에 쉽게 침투(porous)되므로, 미 외교정책행태를 논함에 있어 국내요인의 중요성은 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기존의 교과서들과는 달리 이삼성 교수가 미 국내정치의 분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이 돋보인다. 뿐만 아니라 이 교수가 다루고 있는 것이 미국 사회의 지배구조에 관한 거시적 분석 뿐 아니라 대통령, 의회, 정당과 지배연합 등 대단히 포괄적이라는 점, 그리고 1992년 민주당 승리로 급진전되고 있는 정치세력의 재편까지도 논의하고 있다는 점은 미국사회에 관한 저자의 해박한 지식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다만 현대 미국사회내의 중대한 잠재적 갈등의 축에 관해 소홀히 다루고 있다는 비판은 정당히 제기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예컨대 자본과 노동의 갈등, 산업부문간의 갈등, 다국적 기업과 기초제조업 간의 갈등 등은 미국의 대외경제정책 뿐 아니라 탈냉전 이후 미국의 국제적 역할에 관한 국제주의-고립주의의 논쟁에 있어서 그 물질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민주당의 전통적 뉴딜연합이 붕괴되어 가고 있고 노동의 영향력이 급속히 감퇴되어 온 점이라든가, 1970년대초의 정당 및 의회 개혁 이래 이익집단, 특히 단일이슈집단(single issue groups)의 영향력이 급증한 점, 낙태라든가 인종적, 종교적 이슈 등 비물질적 이슈가 중대한 정치적 갈등의 축으로 등장한 점, 이에 따라 양당 모두가 점차 급진적 세력에 이끌려가고 있는 점 등은 미국 정치세력의 재편의 핵으로 간주되어 왔다. 이러한 점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외교정책의 국내적 기반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국제구조와 국내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미국 외교정책의 특성은 무엇인가? 이를 이교수는 책의 제1부에서 '미국 외교의 흐름과 외교이념'이란 제하에 논의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미국 외교이념에 관한 기존 분류의 검토를 통해 보다 통시적, 거시적이고 세분화된 나름의 분류를 시도하고 있다. 즉, 국제주의-고립주의와 현실주의-자유주의의 두 축을 중심으로 보수적-실용적의 세부분류를 첨가함으로써 루즈벨트 이래 클

린턴 행정부까지의 외교이념을(여기서 저자는 외교이념의 개념을 ‘이념’ 과 ‘성격’ 두가지로 혼용하고 있다) 보다 정확히 규정할 수 있다고 본다. 이러한 분류하에 저자는 레이건 행정부의 외교이념을 보수적인 현실주의적 국제주의로, 부쉬 행정부의 외교이념을 실용적인 현실주의적 국제주의로 분류하고 있고, 새로운 민주당 행정부의 외교이념이 제한적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요컨대 미국의 개입주의적 정책은 지속될 것이나 보다 다자주의적 접근에의 의존이 높아질 것이고 군사적 정책보다는 경제적 측면이 중시될 것이나 대 제3세계 정책에는 당분간 큰 변화가 오지 않으리라는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외교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의가 분분하고 오히려 그 무정함이 비판되는 상황이지만, 제한적인 자유주의적 국제주의로 나아가리라는 저자의 진단은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 다만 저자가 크게 의존하고 있는 정치적 강령이나 선전문들의 인용을 떠나서, 이러한 외교이념과 그 변화의 물질적,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기반으로서의 국내정치에 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이 이 전망의 경험적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보인다.

저자가 일종의 사례연구로서 제시하고 있는 제4, 5부의 글들은, 이러한 주제가 그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학계에서 거의 논의되어 오지 않았다는 점 하나만으로도 환영되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정책이나 군수산업과 무기개발, 무기이전의 문제는 그 시의성을 떠나서도 우리 사회에 지속적으로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 교수의 선구적 노력에 찬사를 보낸다. CIA의 정보전과 비밀공작에 관한 흥미로운 글들도 CIA의 활동이 미 대외정책형성의 명백한 한 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려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다만 제4, 5부의 글은 책 전체의 글이 유지하고 있는 객관성에 비추어 특정한 문헌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는 점이 눈에 띈다.

마지막으로 평자가 가장 쉽게 생각하는 것은 이 책이 미국 외교의 정치, 군사적 측면만을 다루고 대외경제정책을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이다. 미국의 대외경제정책은 그 성격상 정치, 안보정책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미국 자본주의의 성격을 잘 보여주는 분야이다. 또한 대외경제정책은 미국의, 혹은 미국내 제 사회세력의 현시적 이해관계에 기반하므로 종종 국내, 혹은 국제적 갈등을 여실히 드러내 준다. 더우기 탈냉전 이후 경제적 이슈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미국 등의 주도하에 세계무역질서가 빠른 속도로 개방화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대외경제정책의 중요성은 더이상 간과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교수의 책은 커다란 과제를 남겨놓고 있다고 할 것이다.

지금까지 평자가 나름대로 지적한 점들은 미국사회와 국제정치에 대한 이삼성 교수의 해박한 지식과 통찰력에 비추어 볼 때 쉽게 해결될 수 있으리라고 여겨진다. 다만 이 미 700페이지에 달하는 이 책이 더 두꺼워질 것이 염려될 뿐이다.